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표지디자인 구성

학교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에너지 교육과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의 화석연료 의존성을 줄여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숲과 바람과 태양의 학교’는 일본 구즈마키정의 ‘숲과 바람의 학교’를 모티브(motive)로 대안기술센터와의 만남을 통해 2008년 시작되었다. 숲바태 학교의 1차적인 목적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단, 선생님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교에 설치할 발전기를 대안기술센터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장이 나더라도 학교에서 수리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작동원리를 알아야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목적은 재생가능에너지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고, 지역사회를 저탄소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2012. 4. 19.



숲과 바람과 태양의 학교

녹색연합 등록번호 01-12-04-01

기후변화시대를 맞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은 다름 아닌 ‘학교’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대로 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학부모’라 불리는 지역주민들과의 수많은 연결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구다.